

高靈客舍 연구

정 동 략*

Ⅰ 차례 Ⅰ

1. 머리말
2. 관련 자료의 검토
3. 고령객사의 연혁
4. 고령객사의 입지와 건축배치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高靈客舍의 연혁과 건축의 배치형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曹偉(1454~1503)의 「高靈客館記」와 李斗勳(1856~1918)의 『高靈誌』, 高령현감 趙秉璿의 「伽倻館重修記草」 등 문헌자료와 최근의 발굴 성과를 소개하였다.

고령객사는 1493년(성종 24) 고령현감 申澹이 건립하였는데, 正廳인 伽倻館 9칸과 동대청인 寅賓閣 15칸, 서대청인 餞日軒 15칸 등 대략 50여 칸의 규모였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으며, 1843년(헌종 8)에는 고령현감 趙秉璿이 가야관 9칸, 인빈각 15칸 등 55칸을 중수하였으며, 폐문루 3칸 등 17칸은 보수하였고, 전일헌 15칸과 庫直家 3칸 등 31칸은 새로 건립해 규모가 103칸 정도로 확장되었다.

가야관에는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모셨으나, 1896년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闕牌를 봉안하였다. 1909년에 객사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이듬해에 폐지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가야관과 인빈각 등의 건물도 완전히 철거되었다.

고령객사는 가야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인빈각·전일헌을 'II'형으로 배치하였다. 인

* 대가야박물관 학예사

빈각은 정면 5칸 중 마루 2칸·온돌 1칸 등 3칸을 정청의 우측에 붙이고, 나머지는 남쪽 전면으로 나와 있다. 전일현도 동일한 평면구조였다. 인빈각의 남쪽에는 3칸의 폐문루가 있고, 횡각 3칸으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다. 아울러 내삼문과 외삼문은 가야관과 일직선상에 배치되었다. 연못은 가야관의 남쪽 정원에 위치했으며, 객사 주위에는 담장을 둘렀다. 가야관은 남향의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이익공 5량가 판대공의 맞배지붕 건물이며, 인빈각은 서향의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이익공 5량가 판대공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고령객사는 15세기 말 건립되어 400여 년 이상 고령관아의 중심 건물로 유지되다가 조선왕조와 운명을 함께하였다.

주제어

고령객사(高靈客舍), 신담(申澹), 조병선(趙秉璿), 가야관(伽倻館), 인빈각(寅賓閣), 전일현(錢日軒)

1. 머리말

客舍(客館)는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한 국가기관이었다.¹⁾ 객사는 고려 예종·인종 이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고려 말 확산되어

1) 객사의 기능과 역할, 건축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이 참고 된다.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3(통권 5), 1986.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9.
 안길정, 『관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사계절, 2000.
 여상진·심우갑, 「韓末 客舍建築의 消滅」,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0-10(통권 192), 大韓建築學會, 2004.
 이연노·주남철, 「조선초 객사 건축에 관한 연구—문헌연구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0-12(통권 194), 大韓建築學會, 2004.
 여상진·심우갑, 「記文을 통해 본 朝鮮時代 客舍의 性格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1-4(통권 198), 大韓建築學會, 2005.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거의 모든 지방 읍치에 정착되었다.²⁾ 객사는 正廳³⁾에 殿牌(또는 闕牌)를 모셔두고 대궐을 향해 望闕禮를 올리는 장소이자, 지방군현에 파견된 사신이나 외국 사신이 오갈 때 머무는 숙박기관이었다.⁴⁾

객사의 정청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親政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지방관이 국왕에 충성을 다짐하는 곳이었다.⁵⁾ 또한 지방관이 올리는 충성 의례인 朔望禮가 매일 삭망마다 행해 졌고, 객사 앞뜰에서 대궐을 바라보고 올리는 망궐례를 거행했다. 더불어 수령이 고을을 떠났다 돌아올 때 반드시 문안례를 올렸고, 새로 임지에 부임할 때도 배례하는 것이 순서였다. 이 때문에 고을의 수령이 집무를 보는 東軒보다 오히려 격이 높아 관아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했으며,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청의 좌우에 위치한 翼廊에는 온돌방을 만들고 관료들의 숙박이나, 중국·일본·野人 등 조공사신을 접대하였다.

객사의 기능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변화하는데, 전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접대가 중시된 반면, 후기에는 전패를 봉안하고 망궐례를 행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중요시되었다.⁶⁾ 객사는 한말까지 기능이 유지되나, 1909년이 되던 국가체제의 상징성이 상실된다. 즉, 일제에 강점되어 국권을 상실하면서 궐패 봉안이 중지되고 전국에 소재한 객사의 기능이 정지되었던 것이다.⁷⁾

객사는 대개 동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고을의 鎭山을 등진 채 남향

2) 안성시, 『안성객사 해체·중건공사보고서』, 2000, 39~42쪽.

3) 객사에서 전패를 모신 건물은 殿廳, 大廳, 主舍, 正廳, 殿大廳 등 다양하게 불린다. 여기서는 正廳으로 부르기로 한다.

4) 객사의 주요 기능은 '待賓客, 宣威德, 嚴官府'로 요약될 수 있다(여상진·심우갑, 앞의 글, 2005, 134쪽).

5) 殿牌는 임금을 闕牌는 궁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朱南哲, 1986, 앞의 글, 81쪽), 전패는 국왕을 의미하고 궐패는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한말인 1896년 대한제국이 준비되는 단계에 전패를 궐패로 개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여상진·심우갑, 위의 글, 2004, 112~114쪽).

6) 여상진·심우갑, 앞의 글, 2005.

7) 여상진·심우갑, 앞의 글, 2004, 120쪽.

을 하였고, 관아 내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차지하였다. 객사의 건축구조는 정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랑을, 전면에는 중문과 외삼문을 두었으며, 庫直舍·樓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다. 정청은 전패를 봉안하고 행례하는 장소로 좌우 익랑보다 한단 높게 건축되었다.⁸⁾ 정청은 대청을 마루로 깔았고, 좌우 익랑은 온돌과 마루를 놓았다.

고령객사는 일제강점기에 그 현황이 조사된 이후⁹⁾ 조선시대 객사의 건축과 성격 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다. 고령객사 가야관과 인빈각의 건축구조를 ‘ㄱ’자 평면배치로 파악하였으며,¹⁰⁾ 객사의 성격 변화를 언급하면서 梅溪 曹偉의 「高靈客館記」가 소개되는 정도였다.¹¹⁾ 또 고령객사는 成川 東明館의 배치와 좌우가 뒤바뀐 구조라는 점이 지적되었다.¹²⁾ 최근 고령군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舊고령경찰서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구전되어 오던 고령객사터가 확인되었다.¹³⁾

이처럼 고령객사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학 분야에서 간략히 구조를 소개하는 정도였으며, 근래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나 역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¹⁴⁾ 여기서는 문헌자료 및 발굴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고령객사의 연혁과 건축배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8)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9, 39~40쪽.

9) 朝鮮總督府, 『朝鮮藝術之研究』(明治 43年), 1910.

10) 朱南哲, 앞의 글, 1986, 85쪽.

11) 여상진·심우갑, 앞의 글, 2004, 131쪽의 <표 1> 참조. “가야관은 1493년(성종 24) 지은 것으로 고려후기의 건축양식에 원나라 건축양식을 배합하여 독특한 양식을 표현하였다. 함경남도 安邊에 있는 駕鶴樓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방관청 건물이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근거는 밝혀져 있지 않다. 추정컨대 일제강점기에 정리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12) 이연노·주남철, 앞의 글, 2004, 171~172쪽.

13) 대가야박물관·嶺南文化財研究院, 『고령 캐빈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내 高靈 快賓里 433-11番地遺蹟』, 2007.

14) 고령객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최근의 발굴조사보고서에서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대가야박물관·嶺南文化財研究院, 「문헌자료에 나타난 고령객사」, 앞의 보고서, 2007, 21~24쪽).

2. 관련 자료의 검토

1) 문헌자료

고령객사의 건립과 관련한 자료로는 梅溪 曹偉(1454~1503)가 찬한 「高靈客館記」가 있다. 그 후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을 비롯한 각종 읍지류에서 조위의 기문을 수록해 놓았다.¹⁵⁾ 고문서로는 「伽倻館重修記草」가 중수 때의 사정을 전한다. 여기서는 자료 소개를 위해 매계 조위의 「고령객관기」와 弘窩 李斗勳(1856~1918)이 편찬한 『高靈誌』(1910), 「가야관중수기초」 등의 원문을 제시한다.

- (가) ① 申侯清卿 相國文忠公之從子也 世業孺雅 與余同登司馬試 嘗宰靈山 勤於其職 不屑屑於飾廚 傳于時譽 而故舊賓客 交口稱道 人無間言 不規規於照照撫摩 而民皆愛慕 仰若父母 見代之日 攀轅截鏡 邑人思之不已 爲立生祠 有循吏之古風 朝廷特加褒獎 賜一級 盖侯之天性仁恕 惻惻無華 莅民接物 一以至誠故也
- ② 弘治庚戌(1490) 以親老又出爲高靈宰 高靈 侯之鄉貫 吏民之情僞 風俗之淳漓 靡不周知 既視事 新其紀律 務去煩苛 一以治靈山者治之 民乃洽然 闔境案堵 又下旨褒美 由是 侯之名聲 藉藉中外 侯常以廡宇湫隘 欲改而新之者 久矣 而邑在通達大道之傍 輪蹄絡繹 吏苦於迎將 民困於供億 重用其力 累淹歲時 癸丑(1493)春 適有回祿之眚 侯遂決意 取材陶瓦 役以遊手 起正廳三楹 左右廊各五楹 翼室三楹 東軒橫閣三楹 直軒之北 連起樓三楹 引渠鑿沼 種蓮其中 繚以垣墻 雜植花卉 是年秋 功告訖 凡爲屋摠五十餘間 涼宜於夏 燠宜於冬 鮮麗明媚 各稱規制
- ③ 余聞而嘉之曰 有是哉 侯之懋於績用也 侯之仁恩 浹於一境 在人心服 凡有興作 如子來趨 侯之治邑 當求諸潁川 中牟 渤海之間 彪炳史策 垂之罔極 今此營繕 何足置於牙齒 爲侯稱道哉 雖然 縣 古新羅大伽倻 立國五百餘年 山水之勝 甲於嶺南 而自麗初 降爲小縣 壤地之偏 有同黑誌

15) 『慶尙道邑誌』·『嶺南邑誌』·『嶺南輿誌』·『高靈誌』·『嶺南誌』·『高靈郡誌』 등.

政荒民殘 無怪乎靡宇之矮陋也 今一遇賢宰 而能起百年曠古之廢 俾山雲物 亦爲改觀 豈非斯民之福 而茲邑之幸耶 況役不淹時 不傷財 不厲民 深得聖人使民以時之義 尤可書也已 鄉之父老 以爲美談 思侯之德 愈久而愈無窮 如靈山也無疑 而侯之事業 當埒於黃霸卓茂之輩 其可涯也¹⁶⁾

(나) ① 正廳：在邑治北上(東部之南) 舊奉殿牌 太皇帝登皇極壇以來 各郡一齊改之以闕牌

② 寅賓閣：卽正廳之東大廳 大小使行往來 必止宿於此 嘗有曹梅溪偉 所撰閣記略曰 弘治(皇明孝宗年號)庚戌(1490) 申侯清卿(考邑宰案 申應元所當其時 清卿或其字歟) 高靈宰 闔境案堵 癸丑(1493)適有回祿之眚 侯決意取材陶瓦 起正廳三楹 左右廊各五楹 翼室三楹 東軒橫閣三楹 直軒之北連起樓三楹 引渠鑿沼 種蓮其中 是年秋功告訖 凡爲屋五十餘間云云 蓋本郡官廡 申侯一新之 嗣後修改增廢 不可盡詳 惟額篆寅賓閣三字 最初李進士貞春所書 尙揭閣額¹⁷⁾

(다) ① 靈之外有山 高起峰巒 神秀蒼然乎 西南者伽倻也 素稱域內名區 落花巖紅流洞 往往有仙跡云矣 不盡元氣一轉而爲美崇 再轉而爲耳山 控抱百里襟合兩水 田野沃闢 人物繁盛 戶誦絃歌 家勤桑麻者 卽大伽倻國古都也 稽之邑誌 新羅儒理王時 始祖伊珍阿歧爲王 傳十六世五百二十年 眞興王滅之 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以今名 後或稱高陽靈川 世代侵遠 不盡考焉 壬寅夏 不佞官是邑 行望闕禮于客館 瞻殿宇篆伽倻館三字 箸古號也 東有寅賓閣 而棟傾礎圯 西卽錢日軒舊基 而藜蕪荒穢 殆不成樣 噫邑之客館 像象魏 而寓葵誠 接使星而試多士 其所重顧何如哉 草創旣久 年頽歲仆 迫朝夕難支之患 慨然有重修之意 越明年春 詢于吏鄉 皆曰諾 事巨力綿 難以結構 請于營 得公錢若干 乃爲之修 閱六十日工訖 輸材運瓦 借民力也 董役敦匠 賴吏校也 欵樑夏正 壞址重新 無侈前人 無廢後

16) 『梅溪集』卷4, 「高靈客館記」. 『新增東國輿地勝覽』卷29, 高靈縣 宮室조에는 '客館 : 曹偉記...' 이하 동일한 내용을, 『嶠南誌』卷14, 高靈郡 舊公廡조에는 '寅賓閣: 客館 曹偉記...' 이하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구상 약간 차이가 있으나 문맥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그 외에도 弘窩 李斗勳이 편찬한 『고령지』 및 『고령군지』 등에서 일부를 발췌 수록해 두었다.

17) 『高靈誌』卷上, 公廡조.

觀 於是乎慶苒呼嵩儼 若香烟之繞座 有時支巡軒 如玉節之暫駐 凭欄遠眺 則一帶長川 認清淇而環流 捲簾寄傲則 數點前峯 似終南而低黛 石門詩云 予美娟娟望在西 實獲我心也 暇日選儒武而落之 邑人請記其事 略書之 竊嘗 觀館廡之興廢 可知其邑之盛衰 邑之盛衰 不亦係乎 館廡雨漏風撓 隧而葺之 其非靈人之幸歟

- ② 客舍重修：殿大廳九間·賓賓閣十五間(重修丹樓) 錢日軒十五間(新建) 庫直家三間(新建) 內三門七間·外三門三間(重修丹樓) 閉門樓三間(修補丹樓) 江倉庫舍二十一間(重修) 公須十四間(修補：以上南倉錢取剩用下) 書員廳十三間(新建：新結米泰三百五十兩取用 不足條科費零錢取用二百餘兩)
- ③ 新備：鋪陳六立付四件·九立付三件·三立付二件 方席二立 行步席一件 坐燭籠二雙 印信床·兵符床各一坐 大圓盤一坐 中圓盤三坐 青紅油案息各一 青綵燭籠衣二雙 閉門大鼓一坐 坐起鼓一坐 喇叭一雙 呼笛一雙 布大揮帳一件 射布一件¹⁸⁾

먼저, (가)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에서는 주로 고령객사 건립자인 申淸卿에 대해 소개하고, ②에서는 고령객사의 건립과정과 규모 등을 기술하였으며, ③에서는 고령객사를 건립한 신청경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가)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客館’항에 동일한 기문 내용이 수록하였다. 그 후 19세기에 간행된 『경상도읍지』(1832)·『영남읍지』(1871)·『영남여지』(1894)·『교남지』(1940) 등에서는 ‘인빈각’을 ‘객사’로 기록하고 있다.¹⁹⁾ 근대의 자료인 (나)의 『고령지』와 『고령군지』(1959) 공해조에는 고령

18) 『伽倻館重修記草』. 서지사항으로 ‘간행년·간행처 미상, 크기 26×165cm, 청기구호 S10 03 2262’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학전자도서관-한국학원문콘텐츠(고문서)-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壬寅’이라는 간지 이외에는 작성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왕실소장문서’는 대체로 18·19세기 경에 일괄 수집된 것이라고 한다. 자료의 성격 및 관독에 도움을 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수환 선생께 감사드린다.

19) 『경상도읍지』의 「고령현읍지」 공해조에서 인빈각을 객사로 소개한 후, 『영남읍지』·『영남여지』·『교남지』 등에서 그대로 답습하였다. 『嶠南誌』 卷14, 高靈郡 舊公廡조에서는 “正廳三楹 左右廊各五楹 翼室三棟 東軒橫閣三棟 直軒之北連起樓三棟”이라 하여,

객사를 ‘正廳’과 ‘寅賓閣’으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조위의 기문을 발췌해 놓았다.

(나)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은 정청의 위치와 殿牌 봉안을, ②는 인빈각에 대한 소개와 고령객사의 연혁 등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정청의 위치, 건립 연대 및 현감 신청경에 대해서는 세주로 부연 설명을 해두었다. 특히, 邑宰案을 토대로 신청경을 申應元으로, 청경은 그의 ‘字’로 추정해 놓았다.

다음, (다)의 「가야관중수기초」는 언제 누가 작성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壬寅夏 不佞官是邑 行望闕禮于客館 … 越明年春…乃爲之修 闕六十日工訖”이라 하여 임인년의 다음해인 계묘년 봄 60일에 걸쳐 중수했다고 한다. 우선, (다)－①에서 고령의 연혁을 언급하면서 참고한 “邑誌”는 『경상도읍지』(1832)에 수록된 「고령현읍지」로 추측된다. 따라서 1832년 이후의 임인년은 1842년(헌종 8)으로 보인다. 또 “壬寅夏 不佞官是邑 行望闕禮于客館”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임인년 여름에 재주 없이 이 고을 관리가 되어 객관에서 망궤례를 행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기문을 초한 인물은 1842년 현감으로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감으로 부임한 인물은 趙秉璿으로 임인년(1842)에 到任하여 을사년(1845)에 移拜되었다.²⁰⁾ 따라서 (다)는 1843년 현감 조병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①은 고령객사의 중수 동기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②는 구체적인 중수내용을 적고 중수비의 출처는 세주로 기록해 두었고, ③은 새롭게 갖춘 물품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특히, (다)－②에서는 건물의 명칭은 물론 구체적인 칸수와 중수·新建·修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고령객사의 건축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가)는 객사의 건립과정과 내용, (나)는 정청의 전패 봉안과 인빈각 등의 연혁,

‘檻’을 ‘棟’으로 잘못 기록해 두었다.

20) 『嶺南邑誌』 「高靈縣邑誌」 명환조.

(다)는 중수 내역 및 건물의 구체적인 명칭과 규모를 기록해 상호보완적인 고령객사 관련 기본 자료이다.

이 외에 고지도로 『海東地圖』(영조 연간)·『輿地圖』(영조 연간)·『地乘』(18세기 후반경) 등과 읍지류인 『경상도읍지』·『영남읍지』·『영남여지』·규장각소장 『지방도』(1872) 등에 『高靈縣地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해동지도』 등에서는 1동의 객사건물이 衙舍(東軒)과 함께, 『영남읍지』에는 읍치의 관아 건물 등이 간략히 그려져 있어 참고 된다.²¹⁾ 또,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원판사진(1909년 촬영 추정)에는 ‘伽倻館’과 ‘寅賓閣’의 흑백사진이 전해온다.²²⁾ 이상 고령객사와 관련한 문헌자료와 고문서·고지도, 유리원판 사진 등을 검토하면서,²³⁾ 「고령객관기」와 『고령지』, 「가야관중수기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 고고자료

최근 고령군에서는 고령읍 쾌빈리 433-1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2004년 12월에서 2005년 5월까지 발굴조사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객사터로 구건되어 오던 곳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유허를 확인할 수 있었다.²⁴⁾

발굴조사는 3,888m²(약 1,176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그

21) 고지도는 인터넷에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22) ‘고령 객사 인빈각 공포(소관 117-12)’, ‘고령 객사 가야관 내부 가구(소관 117-14)’를 비롯해 ‘고령객사 가야관 세부(소관 117-15)’, ‘고령객사 인빈각 세부(소관 117-16)’, ‘고령 객사 가야관과 인빈각(소관 117-17)’ 등 5매의 원판사진이 전해온다. 1909년 關野貞 등의 조사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3) 『嶠南誌』의 고령향교조에서 ‘高靈鄉校移建記’(李翊亮, 1702)를 인용하면서 “相宅于伽倻館西內麓之巔”이라고 하였다(『嶠南誌』 卷14, 高靈郡, 學院 鄉校조). 또 『경상도읍지』 등 읍지 ‘題詠’조에는 감사 洪愚傳, 참관 尹鳳五, 감사 鄭存謙 등의 인빈각 시가 소개되어 있다.

24) 대가야박물관·嶠南文化財研究院, 앞의 보고서, 2007.

결과 대가야시대의 저습지와 고려~조선시대의 담장 3개소, 연못 1개소, 건물지 3개소, 추정축간 1개소를 비롯해, 구상유구·폐와무지 등 2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도 토기류, 기와·벽돌, 자기류 등 440여 점이였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에 대해 소개한다.²⁵⁾

발굴조사 결과 오랫동안 건물의 증·개축과 일제강점기의 시멘트건물 축조, 한국전쟁기의 피폭, 舊경찰서 건물의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잔존하는 유구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중복된 건물지와 함께 출토된 토기·청자·분청사기편을 비롯한 다량의 백자편과 옹기편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고령 관아터의 흔적들이었다.

먼저, 담장은 3개소가 확인되었다. I 지구의 담장은 조선~일제강점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서방향으로 길이 30m, 폭 70~80cm, 높이 20~50cm 정도 남아 있다. II 지구의 담장1 역시 I 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선~일제강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남-북방향으로 길이 12.5m, 폭 1m 정도가 남아 있다. 또 II 지구의 남쪽에서도 남-북방향으로 길이 7m 정도 되는 담장2가 확인되었다. 이상 3개소의 담장 중 I 지구는 객사의 주요 건물이고, II 지구는 부속 건물로 여겨진다.

건물지는 모두 3개소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I 지구의 중앙부에 위치한 주 건물지(건물지1)는 후대 건축물의 시멘트 바닥과 교란 구덩이 등으로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존상태가 좋지 않았다. 건물지의 동쪽에는 측면기단으로 보이는 유구가 남-북방향으로 약 10m 정도 확인되는데, 중간쯤에 내부로 통하는 계단이 3~4단 정도 남아 있다. 내부에는 株間 거리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하게 적심석이 8개소 정도 확인된다. 또 기단과 각도를 달리하는 석열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수차례의

25) 대가야박물관·嶺南文化財研究院, 앞의 보고서, 2007, 29~30쪽, 〈도면 5. 유구배치도〉 참조. 지면 관계상 도면은 생략하였다.

중·개축에 따른 중복이 있었다. 건물 기단석과 계단의 규모와 형태, 배후에 위치한 담장 및 출입시설(계단)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물지가 고령객사의 유허로 추정된다.

또 I 지구의 남서쪽에도 남-북, 동-서방향의 석열이 부분적으로 확인된 또 다른 건물지가 있었다(건물지2). 이 건물은 II 지구의 담장2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양의 불탄 기와와 소토, 목탄 등이 깔려 노출되고 있어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II 지구의 남쪽 중앙에 동-서방향으로 길이 7m 정도 되는 건물지가 남아 있다(건물지3). 현존 형태로 보아 정면 3칸, 측면 1칸의 門樓로 보이며, I 지구의 객사건물로 출입하는 통로인 外三門으로 여겨진다.

한편, II 지구의 서쪽에는 동-서방향으로 장방형의 석축 연못이 동-서 10m, 남-북 3.5m 정도의 규모이다. 연못 내부에는 거의 백자편만 출토되어 객사의 정원에 있던 연못으로 보인다.

유물은 기와편과 분청사기·백자 등 다량의 자기편이 출토되었다. 그 중 기와의 명문인 ‘高’ 또는 ‘高靈’은 관아 또는 향교와 같은 공공건물에서 사용된 것으로 주목된다. 유물들은 대가야시대의 것을 제외하면, 고려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로 편년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관아 관련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常平通寶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엽전과 함께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널리 유통된 寬永通寶 1점이 출토되었다. 원래 관영통보는 관영 3년(1626)부터 天和 3년(1683) 사이에 주조된 것으로, 그 중 배면에 ‘文’자가 새겨진 것은 文錢으로 1668~1683년까지 에도에 위치한 龜戶鑄造所에서 주조되었다고 한다.²⁶⁾ 관영통보는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평통보의 주조연대 등을 감안해 본다면, 18~19세기에 유입된 것으로

26) 대가야박물관·嶺南文化財研究院, 앞의 보고서, 2007, 56쪽, 158쪽, 161쪽.

보인다. 관영통보는 근래 경주읍성의 공공건물지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외교사절이 머무는 객사를 출입했던 인물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기도 한다.²⁷⁾ 객사는 조선후기 통신사나 일본의 사절단이 왕래할 때 한양에서 부산을 경유하는 연결통로에 위치한 지역일 경우에는 필수 경유지였다. 특히, 고령객사터에서 관영통보가 출토된 것은 고령지역이 부산에서 경주를 거쳐 한양으로 연결되는 조-일 교류의 주요 루트의 한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고령지역 관아건물의 일부인 객사건물지와 담장, 주 출입통로였던 문루, 정원의 연못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로 편년되며, '高靈'명 기와와 관영통보 등은 주목된다. 하지만, 확인된 주건물지가 객사의 정청인 가야관인지 아니면 좌우 익랑인 인빈각이나 전일헌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쪽에 진입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청보다는 인빈각일 가능성이 높다. 객사 남쪽의 주통로에 있는 정면 3칸의 문루는 외삼문으로 보인다.

3. 고령객사의 연혁

고령객사는 읍치의 北上편인 東部²⁸⁾의 남쪽에 흥치 계축년(1493, 성종 24)에 건립하였다. 고령객사를 건립한 고령현감 申淸卿은 (가)에서 관향은 고령이며, 文忠公 申叔舟(1417~1475)의 조카라고 한다. 그는 1472년(성종 3) 매계 조위와 함께 司馬試에 등제한 후 영산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선정

27) 차순철,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출토 日本寬永通寶에 대하여」, 『경주고고』 제4호, 2005.

28) 東部는 東阜, 東培, 東阜 등으로 불리며, 현 고령 관음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언덕을 의미하는 培나 阜·阜를 쓴 것은 봉두골 동쪽 언덕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의미이다(兪炳圭, 『高靈地方의 마을史』, 高靈文化院, 2000, 32~33쪽).

을 베풀어 邑인들이 生祠堂을 건립하였으며, 조정에서 표창하였다. 1490년(성종 21)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령현감으로 부임하였고, 1493년(성종 24) 고령객사를 건립하였다. (나)에서 “邑宰案을 상고해 보니 申應元이 당시의 현감이었으며, 청경은 그의 字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놓았다. 즉, 신청경은 신응원이며, 청경은 그의 字라는 것이다. 읍지의 名宦·守宰조를 확인해 보면 당시의 현감으로 신응원이 수록되어 있다.

(가)에서 신청경이 靈山현감으로 선정을 베풀어 읍인들이 생사당을 세웠다고 하므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라) 申澹：癸卯(1483)到任 戊申(1488)瓜遞 生祠堂在縣東二十里 今無 濯纓金駟孫 作記…²⁹⁾

(라)는 『靈山縣邑誌』의 宦歷조³⁰⁾에 수록된 申澹에 관한 자료이다. 그는 1483년(성종 14)에서 1488년까지 6년 동안 영산현감으로 재임하였다.³¹⁾ 읍인들이 그를 위해 세운 생사당이 현 동쪽 20여 리에 있었으나,³²⁾ 읍지의 편찬 시기인 19세기에는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濯纓 金駟孫(1464~1498)의 『生祠堂記』 일부가 소개되어 있어, 신청경은 신담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김일손의 『생사당기』를 살펴보자.

(마) 歲癸卯(1483)夏 高陽申侯澹 由軍器主簿 求便養出爲是縣 聞於人者 皆善政也 … 乙巳之災 侯戴星躬出入閭閻 所以備荒者 咸盡其方 … 按東方之故 自三國以來數千年間 名於官者總總也 而未聞所謂生祠者 … 侯字清卿

29) 『慶尙道邑誌』 『靈山縣邑誌』 및 『嶺南邑誌』 『靈山縣邑誌』, 宦蹟조 .

30) 『慶尙道邑誌』 및 『嶺南邑誌』.

31) 『濯纓先生文集』 續上, 詩, 五言絶句, 「送靈山縣監申澹解官歸京師戊申」.

32) 『성종실록』에서는 “생사당이 동쪽 2리에 있었다”고 한다. 『靈山縣邑誌』 편찬 당시에는 없어졌으므로, 『성종실록』의 언급이 더 정확할 듯하다.

壬辰進士 爲人厚重訥而敏 善吟詩知讀書 盖其爲治 有根本者也 … 33)

당시 김일손은 淸道에서 영산을 왕래하면서 현감 신담과 자주 만났다. 이러한 인연과 영산 사람들의 부탁으로 「생사당기」를 지었다. (마)에 의하면 신담은 본관이 高陽(고령)으로, 軍器主簿로 있다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1483년(계묘) 여름 영산현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1485년(을사)의 흉년에 백성을 성심껏 구휼하였으므로, 임기를 마치고 떠나자 읍인들이 생사당을 건립하였다.³⁴⁾ 특히, “신담의 자는 청경이며, 임진년(1472) 진사”라고 소개되어 있어, 신담이 신청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두훈의 지적처럼 신응원과 동일인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내용과 高靈신씨 족보를 참조하여 신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⁵⁾ 靈山公 신담은 본관이 고령이며, 자는 청경이다. 조부는 巖軒公 檣이다. 문충공 신숙주의 조카이며, 安東公 松舟의 4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472년(성종 3) 매계 조위 등과 함께 사마시에 등제하였으며, 관직에 진출하여 군기주부를 지냈다. 1483년 여름 영산현감으로 부임하여 1488년까지 선정을 베풀어 읍인들이 생사당을 건립하였다. 1490년(성종 21) 고령현감이 되었고 1493년 고령객사를 건립하였다. 고령현감으로 재임하면서도 선정을 베풀어 명성이 자자하였다.³⁶⁾ 슬하에 3녀가 있었다. 묘소는 경북

33) 『濯纓先生文集』 卷3, 記, 「靈山縣監申澹生祠堂記」 및 『續東文選』 卷14, 「申侯澹生祠堂記」.

34) 신담의 생사당을 건립한 일에 대해 김일손은 ‘삼국 이래 수천년의 역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조정에서도 논의가 분분하였다(『成宗實錄』 성종 20년 2월 경술, 4월 정미 및 기유, 23년 임자 8월 정묘, 9월 무인조 등 참조). 특히 성종 20년 4월 정미일의 「慶尙道觀察使 金礪石의 馳啓」에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다.

35) 『海東雜錄』 卷4에서는 신담에 대해 “高靈人 字淸卿 知讀書好吟詩 以蔭補官 出爲靈山倅 民追慕爲立祠祀之 濯纓子有生祠堂記”라고 한다. 즉, 신담은 “본관은 高靈, 자는 淸卿이며, 독서와 시 읊는 것을 좋아하였다. 음사로 靈山의 수령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추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하였다.”고 하면서, 김일손의 「생사당기」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상주시에 있으며, 墓碣이 있다고 한다. 김일손은 “사람됨이 온후하고 정중하며, 말에는 어눌하지만 일에는 민첩하였으며, 시 읊기와 독서를 좋아하니, 대개 다스림에도 근본을 헤아릴 줄 안다”고 하였으며, 『성종실록』 史臣의 논평에는 “순박하고 근실하여 멋대로 거두는 일이 없어 백성들이 사모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가)－②에서는 고령객사의 건립동기가 설명되어 있다. 1490년 신담이 고령현감으로 부임한 후 관청 건물이 누추하고 좁아 새롭게 중수할 필요가 있었다. 고령지역의 입지가 사방으로 통달하는 大道변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여 수레와 말발굽이 끊이지 않아 향리와 백성들이 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객사 건립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 게다가 계축년(1493) 봄에 큰 화재를 당하자 재목과 기와를 준비하고 遊手를 모아 공역을 일으켜 객사를 비롯한 관아건물을 일신하였다.³⁷⁾ 공역은 봄에 기공하여 가을에 준공하였는데, 공기는 대략 8개월여 남짓하였다.

(바) 仁同 百室之邑也 其地濱于洛之東涯 實據嶺南中路之要衝焉 非惟皇華之使 數政於南服者 往來相繼也 如日本流求九州三島之夷 奉琛重譯而至者 朝而送夕而迎 四時不絕 其廚傳供帳 比之輿郡爲甚鉅 邑雖小而其賓館不可自同於鋪遞之制也³⁸⁾

(바)는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仁同客舍重修記」이다. 인동객사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481년 경 중수하였다. 인동은 낙동

36) 1492년(성종 23) 8월 성종이 직접 이조에 전교하여, “밀양 부사 許誠과 고령 현감 申澹과 의흥 현감 金秀文은 治民하는 데 많이 노력하였으니, 다음 政事 때에 아뢰도록 하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성종실록』, 성종 23년 8월 정묘).

37) 고령객사는 1493년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지었다고 한다(이연노·주남철, 앞의 글, 2004, 171쪽).

38) 『佔畢齋集 文集』 卷2. 「仁同客舍重修記」(代縣監金浚作) 및 『續東文選』 卷14. 「仁同客舍重修記」.

강변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조정의 사신뿐 아니라, 日本·流求·九州 등 외국의 조공사신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동헌과 객사가 궁벽해 중수하게 되었다. 낙동강변에 위치한 인동의 지리적 환경이 고령지역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참고가 된다.

고령객사의 건립 당시 규모는 (가)에서 50여 칸이라고 하였고, (나)에서 건립 후 증·개축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다)에서 중수 내용을 언급하면서, 중수·신건·수보 등을 기록해 두어 창건 당시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에서 정청 3영, 좌우 익랑 각 5영, 익실 3영, 동헌 횡각 3영, 연기루 3영 등 모두 50여 칸의 건물이 있었다. (나)에서는 정청과 함께 동대청으로 인빈각을 소개하고 있다. (다)에서는 정청인 殿大廳 9칸과 동대청인 寅賓閣 15칸, 서대청인 饑日軒 15칸, 內三門 7칸, 外三門 3칸, 閉門樓 3칸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서로 대입해 건립 당시의 건물을 보면, 정청=전대청, 좌익랑=동대청, 우익랑=전일헌 등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익실, 동헌 횡각, 연기루 등은 잘 알 수 없다.

고령객사는 건립 이후 여러 차례 중수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다)뿐이다. (다)-①에 따르면 1842년 경 고령현감으로 부임한 趙秉璿이 경상감영의 도움을 받아 1843년 봄에 60일간에 걸쳐 객사를 중수하였다.

중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42년 여름에 현감으로 부임한 조병선이 객관에서 망궐례를 올린 후 건물을 살펴보니, 정청인 가야관과 동대청인 인빈각은 기둥이 기울어지고 초석이 무너졌으며, 서대청인 전일헌은 이미 폐하여 없어지고 잡초만 무성하였다. 이 때문에 객사의 중요한 기능인 군왕의 덕을 숭양하고 사신을 접대하며 선비를 시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처음 창건한지가 오래되어 해마다 퇴락해 조석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에 중수할 뜻을 가지고 이듬해인 1843년 봄에 고을의 사람들(吏鄕)의 의견을 들어 보니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커서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많아 결실을 맺기 어려우므로 監營에 청해 公錢 약간을 지원받았다. 재목과 기와를 옮기는 것은 民力을 빌리고 공역의 감독과 장인의 동원은 향리들(吏校)의 힘에 의지하였다. 공역을 시작한지 60일 만에 마치게 되었다. 기울어진 대들보는 바로 잡고 무너진 옛 터는 중수하여 새롭게 하였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중수하니 객사의 외관은 장엄하였고 사신들이 잠시 머물기에 편안하였다. 객사의 난관에 올라 주변을 보니 고을 앞으로 펼쳐진 하천과 산봉우리가 한 눈에 들어와 경관 또한 매우 뛰어났다. 이에 날을 정해 유림(儒武)을 선발해 낙성식을 개최하고, 읍인들의 청에 의해 중수기를 초하게 되었다.

(다)－①에서 감영에 청해 公錢을 얻어 중수했다고 한 상세한 내역은 (다)－②, ③에서 기록해 두었다. 즉, 전대청 9칸, 인빈각 15칸, 내삼문 7칸, 외삼문 3칸, 강창고사 21칸 등 55칸은 重修하였으며, 폐문루 3칸과 공수 14칸 등 17칸은 補修하였고, 전일헌 15칸과 고직가 3칸, 서원청 13칸 등 31칸은 新建하였다. 그리고 전대청과 인빈각, 내삼문과 외삼문, 폐문루 등은 단청도 새롭게 하였다.

이처럼 고령객사는 1843년 봄 60일간에 걸쳐 현감 조병선이 중심이 되어 중수하여 모두 103칸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처음 건립 때보다 2배 정도의 규모로 확장된 셈이다. 더불어 鋪陳 등 18종류의 물품도 새로 갖추어 객사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중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대청에서 공수에 이르는 건물의 중수·수보·신건 등의 비용은 南倉錢에서 취한 이자를 사용하였고, 서원청은 新結米泰 350냥과 부족한 부분은 科費零錢 200여 냥 등 모두 550냥 정도였다.

(나)에서 정청에는 殿牌를 모시고 있었는데, 고종 황제 등극 이후 각 군에

서 일제히 關牌로 고쳤다고 한다. 그 시기는 1896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8월 고종은 각 지방의 전패는 황제를 상징하는 궤패로 개호하라는 칙령을 반포하고 바로 시행하였다.³⁹⁾ 대한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객사에 봉안하고 있던 왕의 상징인 전패를 황제를 상징하는 궤패로 고쳐 붙렸던 것이다. 고령객사는 1896년까지는 전패를, 그 이후는 궤패를 봉안하였던 것이다.

고령객사가 기능이 정지된 것은 한말 객사제도의 폐지와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 각 고을 있는 객사는 自來로 궤패를 봉안하였던 곳인데, 이번에 그 궤패를 일제히 거두어 올리고 그 집은 지방에서 쓰기로 결정되었다더라.⁴⁰⁾

1909년 11월 전국에 위치한 객사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1910년에는 각 군에서 봉안하던 궤패는 御眞을 봉인한 후 宮內府나 觀察道로 옮기게 되었다.⁴¹⁾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고령객사 역시 1909년 그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1910년 궤패를 옮기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객사는 한말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는 시기에 이르러 그 기능이 소멸하면서 조선왕조와 운명을 함께하였던 것이다.

고령객사는 1909년에 이르러 전국의 객사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에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건물은 유지되고 있었다. 1909년 關野貞의 고건축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령객사인 가야관은 '특별보호가 필요한 건물인 丙'으로 분류되어,⁴²⁾ 보존상태가 양호하였다. 하지만, 그 후 일제에 의해 방치되다가 경찰

39) 『舊韓國 官報』 乾陽 元年 8월 18일, 勅令 53호, 여상진·심우갑, 앞의 글, 2004, 114쪽 재인용.

40) 『大韓每日申報』 1909, 11, 27. 2면 잡보, 客舍廢址.

41) 『大韓每日申報』 1910, 1, 2. 2면 잡보, 各郡關牌.

42) 朝鮮總督府, 『朝鮮藝術之研究』(明治 43年), 1910.

서 건물이 건립되면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⁴³⁾ 또 1938년 쌍림면 신촌리의 峇碧亭 건립에 고령객사의 부재 일부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1930년대 후반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 舊고령경찰서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객사는 1493년 봄 현감 申澹이 공역을 시작하여 가을에 준공하였다. 당시 건립된 건물은 정청·익랑·익실·누각 등 50여 칸과 연못·담장 등이었다. 그 후 여러 번 변화가 있었는데, 1843년 봄 현감 조병선이 公錢을 지원받아 100여 칸으로 증수한 사실이 전한다. 객사의 정청에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있었는데, 1896년에 황제를 상징하는 궐패로 바뀌었다. 그 후 1909년에 그 기능이 폐지되었다. 객사의 주 건물은 정청인 가야관과 동대청인 인빈각, 서대청인 전일헌 등이었다. 고령객사는 15세기 말인 1493년 50여 칸을 건립하였고, 19세기 중반인 1843년에 증수하여 100여 칸으로 확장되었으며, 20세기 초인 1909년에 기능이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가야관과 인빈각 등의 주요 건물이 유지되었으나, 이후 舊경찰서가 건립되었다.

4. 고령객사의 입지와 건축배치

『경상도읍지』·『고령지』 등 읍지의 공해조에는 객사(정청, 인빈각)를 비롯한 각종 관아건물이 정리되어 있다. 그 중 객사와 인접한 건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교남지』의 관공서조에 경찰서가 수록되어 있어 1940년 이전에 객사 건물을 폐기하고 舊고령경찰서를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타 지역의 객사가 일제강점 이후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경찰서 등 관공서로 사용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 (아) ① 正廳：邑治의 북상 쪽(東部の 남쪽)에 있다.
 ② 寅賓閣：정청의 東大廳이다.
 ③ 平近堂：유허가 정청의 서쪽에 있는데, 일찍이 관아의 東軒이었다.
 ④ 披香亭：평근당 유허의 서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관아의 정자였으나 평근당이 폐하고 나서 동헌으로 사용하였다.
 ⑤ 將廳：인빈각 남쪽 아래쪽에 있다. 원래 軍官이 거처하였으나 지금은 폐하고 郡主事의 관서가 되었다.
 ⑥ 養武堂：그 유허가 인빈각의 북쪽 위에 위치하고 있다.⁴⁴⁾

(아)－①～⑥을 통해, 조선시대 관아의 중심부인 객사의 정청은 읍치의 북상 쪽, 동부(현 고령초등학교 부근)의 남쪽에 있었다. 정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대청인 인빈각, 서쪽에는 서대청인 전일헌이 자리했다. 또 객사 건물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는 지방관의 집무처인 동헌인 평근당과 정자인 피향정(후에 평근당을 대신해 동헌으로 사용)이, 남쪽으로는 장청, 북쪽에는 양무당이 위치해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령객사의 입지를 개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 즉, 최근 발굴조사 한 舊경찰서부지(현 케빈리 공영주차장)에 객사, 서쪽의 고령우체국과 고령읍사무소·동화아파트 자리에는 동헌인 평근당과 피향정, 북쪽인 고령초등학교 방향에 양무당, 남쪽의 고령시장 쪽에 장청이 위치해 있었다.

고지도인 『해동지도』·『여지도』·『지승』 등에서도 객사건물과 그 서쪽편에 衙廡(동헌)와 피향정이 배치되어 있고, 『지방도』(1872)에서는 객사를 비롯해 동헌, 軍器庫, 將廳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를 관아건물의 명칭이 없지만 표현이 자세한 『영남읍지』에 대입해 보면, 서편에 피향정과 평근당이, 아래쪽의 ‘ㄱ’자 형태로 배치된 건물이 고령객사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고령객관기」와 「가야관중수기초」의 객사 건축 관련 내용을 다시

44) 『高靈誌』 및 『高靈郡誌』의 公廡조 참조.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 (자) ① 正廳三楹 左右廊各五楹 翼室三楹 東軒橫閣三楹 直軒之北連起樓三楹
引渠鑿沼 種蓮其中 繞以垣牆 雜植花卉 … 凡爲屋摠五十餘間(『고령
객관기』)
- ② 客舍重修：殿大廳九間·寅賓閣十五間(重修丹雘) 錢日軒十五間(新建)
庫直家三間(新建) 內三門七間·外三門三間(重修丹雘) 閉門樓三間(修
補丹雘) 江倉庫舍二十一間(重修) 公須十四間(修補：以上南倉錢取剩
用下) 書員廳十三間(新建：新結米泰三百五十兩取用 不足條科費零錢
取用二百餘兩)(『가야관중수기초』)

(자)－①은 건립 당시 고령객사의 규모를 건물 정면의 칸수만을 기록한 것이며,⁴⁵⁾ (자)－②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즉, 정청 3영은 전대청 9칸(정면 3칸, 측면 3칸), 좌우랑 각 5영은 인빈각 15칸·전일헌 15칸(정면 5칸, 측면 3칸)⁴⁶⁾이며, 동헌 횡각 3영·연기루 3영·익실 3영 등은 잘 알 수 없다.⁴⁷⁾

또 (자)－②의 외삼문 3칸, 내삼문 7칸, 폐문루 3칸, 강창고사 21칸, 공수 14칸 등은 건립 이후 추가된 건물로 보인다. 고직간 3칸과 서원청 13칸은 1843년에 신축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객사의 구조는 成川東明館⁴⁸⁾과 좌우가 뒤바뀐 비슷한 배치 형태였을 것이라고 한다.⁴⁹⁾

45) (자)－①의 ‘楹’은 ‘間’으로 해석된다.

46) 고령객사 가야관은 정면 3칸·측면 미상, 인빈각은 정면 3칸·측면 5칸의 이익공 구조로 파악기도 한다(朱南哲, 앞의 글, 1986, 85쪽). 하지만 유리원판사진에서 인빈각은 정면 5칸·측면 3칸이다.

47) 다만, 동헌 횡각 3영, 연기루 3영은 각각 3칸씩인 것으로 추정된다.

48) 성천 동명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朝鮮古蹟圖譜』 卷11, 客舍 및 朱南哲, 앞의 글, 1986, 82~83쪽 참조.

49) 건립 당시 고령객사는 “정청 3칸을 중심으로 전면에 좌·우랑을 두어 하나의 마당 공간을 형성했다. 또 익실 3칸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은 동헌으로 추정된다. 이 헌 북쪽에 3칸의 연기루를 만들었으며, 횡각 3칸을 만들어 동헌과 연기루를 연결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유리원판사진을 참조하면서 고령객사의 배치형태와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령객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청(가야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서대청을 측면에 직각으로 붙여서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동대청인 인빈각의 경우 서쪽을 바라보는 마루 2칸 온돌 3칸의 정면 5칸 건물이었다. 그 중 북편의 마루 2칸과 온돌 1칸 등은 정청 동측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남쪽 전면으로 튀어 나온 형태이다. 서대청인 전일현도 인빈각과 동일한 평면구조였을 것이다. '동헌 황각'의 동헌은 인빈각으로 보이므로, 인빈각 남쪽에 3칸의 연기루를 만들고 황각 3칸으로 서로 연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실 3칸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인빈각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연못은 정청 남쪽의 정원에 위치했으며, 입수구는 서편이다. 연못에 물을 끌어 들인 하천은 고령향교 쪽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서 연못의 남쪽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문루가 확인되었는데, 객사의 외삼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 주위에 담장을 두르고 각종 수목과 화초를 심었다.

고령객사의 건물배치는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인빈각과 대칭되는 전일현은 『고령지』에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10년 이전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청(가야관)과 동대청(인빈각)은 일제강점기까지 건물이 유지되고 있었다.

가야관과 인빈각의 건축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⁵⁰⁾ 먼저, 가야관은 남향을 한 정면 3칸에 측면 3칸으로 추정되는 이익공의 5량가 판대공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에는 전서체로 쓴 '伽倻館'이라는 현판 하단의 일부가 희미하게 보인다.⁵¹⁾ 건물은 장방형의 장대석을 3단으로 쌓은 기단 위에 가운

추정된다. 연못은 伽川에서 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듯하다. 전체적으로 좌우 비대칭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 부분을 개방해 조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成川 東明館과 비슷한 구조라고 한다(이연노·주남철, 앞의 글, 2004, 170~171쪽).

50) 건축구조에 대해 조연을 해주신 청도 한옥학교의 변숙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데는 화강석의 연화문을 새긴 원형 초석을, 우측은 막돌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내삼문에서 마당을 거쳐 정청으로 이어지는 중앙에는 양측에 1단의 활석으로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정면 중앙에는 2단의 계단을 만들어 기단 위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면 1칸은 퇴칸을 만들고 마루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야관과 인빈각 사이로 북쪽 방향에 위치한 홍살문이 보인다(사진 1~3).

다음으로 인빈각은 가야관의 동쪽에서 직각으로 서향을 하고 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이익공의 5량가 판대공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정면에서 우측 3칸은 온돌방이며, 좌측 2칸은 마루이다. 마루 2칸과 온돌 1칸은 가야관의 동쪽측면에 접해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3~5단의 자연석재를 가공한 활석으로 막돌 쌓기 한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기단의 높이는 가야관과 같다. 인빈각 옆으로는 치석한 돌을 사용한 담장을 둘러놓았다. ‘인빈각 세부’에는 전서체의 ‘寅賓閣’ 현판 하단이 보이는데, 진사 李貞春이 쓴 것이다(사진 1, 4~5). 그리고 가야관과 인빈각의 내부에는 용문, 당초문, 연화문 등의 단청을 칠해 놓았다. 이처럼 유리원판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가야관과 인빈각의 모습을 부족하나마 살펴볼 수 있다. 향후 고령객사의 복원을 기대해 본다.

5.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로 삼기로 한다. 먼저, 관련 문헌자료와 고문서·고지도·사진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梅溪 曹偉(1454~1503)의

51) (다)－②에서 ‘篆伽倻館三字著古號也’라고 하여 전서로 쓴 ‘伽倻館’ 현액을, (나)－②에서는 진사 李貞春이 전서체로 쓴 ‘인빈각’ 현액을 걸어 두었다고 한다. 유리원판사진에서도 전서체로 쓴 ‘가야관’과 ‘인빈각’ 현판의 아랫부분이 보인다.

「高靈客館記」와 弘窩 李斗勳(1856~1918)의 『高靈誌』, 고령현감 趙秉璿의 「伽倻館重修記草」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추정)객사 건물지와 담장·문루·연못과 '高靈'명 기와, 寬永通寶 등 '고령객사터'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였다.

고령객사는 1493년(성종 24) 읍치의 북편인 東部(현 고령초등학교)의 남쪽에 현감 申澹이 건립하였다. 건립 당시는 正廳·左右翼廊·翼室 등 50여 칸의 규모였는데, 정청인 伽倻館 9칸과 동대청인 寅賓閣 15칸, 서대청인 餞日軒 15칸 등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했지만 19세기 중반의 사례가 확인된다. 1842년(헌종 8) 고령현감으로 부임한 趙秉璿이 1843년 봄에 중수하였다. 이 때 殿大廳(가야관) 9칸, 인빈각 15칸, 내삼문 7칸, 외삼문 3칸, 江倉庫 21칸 등 55칸은 중수하였으며, 폐문루 3칸과 公須 14칸 등 17칸은 보수하였고, 전일헌 15칸과 庫直家 3칸, 書員廳 13칸 등 31칸은 새로 건립하였다. 가야관과 인빈각, 내삼문과 외삼문, 폐문루 등은 단청도 새롭게 하였다. 더불어 鋪陳 등 18종류의 물품을 새로 갖추었다. 그 결과 모두 100여 칸 정도의 규모로 확장되었다.

정청인 가야관에는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모셨으나, 1896년 황제를 상징하는 闕牌를 봉안하였다. 1909년에는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1910년 결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폐지되었다. 그 후에도 정청과 인빈각 등의 건물만은 유지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에 철거되고 舊고령경찰서가 건립되었다.

고령객사의 배치형태는 정청인 가야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서대청을 대칭적으로 배치한 'n'형이었다. 인빈각은 정면 5칸 중 마루 2칸·온돌 1칸 등 3칸을 가야관의 우측에 붙이고, 나머지는 남쪽 전면으로 나와 있었다. 전일헌도 동일한 평면구조였다. 인빈각의 남쪽에는 3칸의 연기루가 있고, 횡각

3칸으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다. 익실 3칸은 알 수 없으나, 인빈각 남쪽에 위치한 듯하다. 아울러 내삼문과 외삼문이 가야관과 일직선상에 배치되었다. 연못은 가야관의 남쪽 정원에 위치했다. 객사 주위에는 담장을 둘렀다. 가야관은 남향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이익공 5량가 판대공의 맞배지붕 건물이었다. 인빈각은 서향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이익공 5량가 판대공의 팔작지붕 건물이었다.

고령객사는 15세기 말인 1493년 50여 칸을 건립하였고, 1843년 100여 칸으로 확장되었다. 20세기 초인 1909년에 기능이 폐지되었으며, 1930년대까지는 건물이 유지되었다. 주요건물은 정청인 가야관과 동·서대청인 인빈각과 전일헌이었다. 따라서 고령객사는 400여 년 이상 관아의 중심 건물로 유지되다가 조선왕조와 운명을 함께하였다.

이상 고령객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객사 제도와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 자료의 한계로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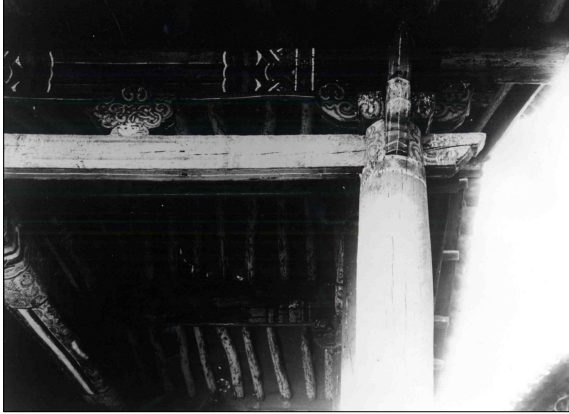
【참고자료】



〈사진 1〉 고령객사 가야관과 인빈각(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 고령객사 가야관 내부기구(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 고령객사 가야관 세부(국립중앙박물관)



〈사진 4〉 고령객사 인빈각 공포(국립중앙박물관)



〈사진 5〉 고령객사 인빈각 세부(국립중앙박물관)

【참고문헌】

- 『1872년 地方圖』·『慶尙道邑誌』·『高靈郡誌』·『高靈誌』·『嶠南誌』·『舊韓國 官報』·『大韓每日申報』·『梅溪集』·『成宗實錄』·『續東文選』·『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嶺南輿誌』·『嶺南邑誌』·『佔畢齋集』·『朝鮮古蹟圖譜』·『地乘』·『濯纓先生文集』·『海東雜錄』·『海東地圖』
- 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9.
- 대가야박물관·嶺南文化財研究院, 『고령 쾌빈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내 高靈 快賓里 433-11番地遺蹟』, 2007.
- 안길정, 『관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사계절, 2000.
- 안성시, 『안성객사 해체·중건공사보고서』, 2000.
- 여상진·심우갑, 「韓末 客舍建築의 消滅」,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0-10(통권 192), 大韓建築學會, 2004.
- 여상진·심우갑, 「記文을 통해 본 朝鮮時代 客舍의 性格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1-4(통권 198), 大韓建築學會, 2005.
- 俞炳圭, 『高靈地方의 마을史』, 高靈文化院, 2000.
-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연노·주남철, 「조선초 객사 건축에 관한 연구—문헌연구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0-12(통권 194), 大韓建築學會, 2004.
- 朝鮮總督府, 『朝鮮藝術之研究』(明治 43年), 1910.
-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3(통권 5), 1986.
- 차순철,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출토 日本寬永通寶에 대하여」, 『경주고고』 제4호,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Goryeonggaeksa(高靈客舍)

Jung, Dong-Rak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and shape of Goryeonggaeksa. First of all, such documentary materials as 「Goryeonggaekgwangi」 of Jo-wi(1454~1503), 『Goryeongji』 of Yi-duhun(1856~1918), and 「Gaya-gwanjung sugicho」 of Jo-byeongseon as well as recent excavation results are introduced.

Goryeonggaeksa was founded by Goryeonghyeongam Sin-dam in 1493(the 24th year of King Seongjong). It consists of about 50 kan(間)s including 9 kans of Jeongcheong Gayagwan, 15 kans of Dongdaecheong Inbingak, and 15 kans of Seodaechong Jeonilheon. Thereafter, there were many restorations, one of which in 1843(the 8th year of King Heonjong) Goryeonghyeongam Jo-byeongseon covered the 50 kans including 9 kans of Gayagwan and 15 kans of Inbingak. In time, 17 kans including 3 kans of Pyemunru were repaired, and 31 kans in total including 15 kans of Jeonilheon, and 3 kans of Gojikka were newly built, which expanded the whole site to 103 kans.

Jeonpae, a symbol of King, was dedicated in Gayagwan, and in 1896, Gwolpae, a symbol of Emperor, was newly enshrined. The function as a Gaeksa was discontinued in 1909, and abolished in the next year. In late 1930's, such buildings as Gayagwan and Inbingak were completely demolished.

Goryeonggaeksa had Gayagwan at the center and Inbingak · Jeonilheon at the sides, which formed a 'II' shape. Inbingak had 3 kans(two floors and one ondol) at the right side of Gayagwan and the rest of 5 kans at the Southern part. Jeonilheon had the same plan. There were 3 kans of Pyemunru at the Southern part of Inbingak, and the two buildings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the 3 kans of Hwaenggak. In addition, Naesammun and Wesammun were arranged in the same line with Gayagwan. The pond was located at the Southern

part of the garden in Gayagwan, and Gaeksa was surrounded by fences.

Gayagwan was a gable roof building in Yiikgong Oyrangga that consisted of 3 kans in the front(facing the south) and 3 kans at the side, while Inbingak was a hipped-and-gable roof building in Yiikgong Oyrangga which consisted of 5 kans at the front(facing the west) and 3 kans at the side.

Goryeonggaeksa was founded in the late 15 century, used as the central building of Goryeongwana for more than 400 years, and then ruined upon the fall of Joseon Dynasty.

Key Word

Goryeonggaeksa, Sin-dam, Jo-byeongseon, Gayagwan, Inbingak, Jeonilheon

▪ 논문투고일 : 2008.6.30. 심사시작일 : 2008.7.14. 심사완료일 : 2008.7.31.